

교회안내

■ 명칭 | 뉴욕예일장로교회

■ 표어 | 예수님 제일 (마 1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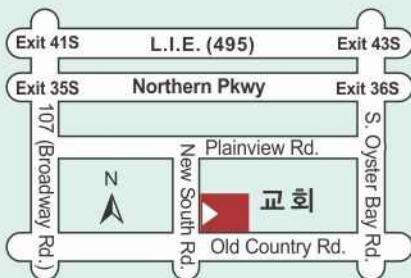
■ 실천목표

- ① 영감있는 예배 ② 십자가 사랑의 교제
- ③ 땅끝까지 복음전파 ④ 천국일꾼 훈련양성
- ⑤ 이민가정의 치료 ⑥ 능력있는 기도생활

정기모임 안내

집 회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1 부 예배	오전 7:30	본 당
	2 부 예배	오전 9:00	본 당
	3 부 예배	오전 11:00	본 당
	영 어 예배	오후 1:00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본 당
수 요 예배	오후 8:30	본 당	
새 벽 기도 회	오전 5:30 (월~토)	본 당	
목 장 모 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 자 훈 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 일 학 교	영아부(3세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교육관	

교회 오시는 길



플러싱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우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롱아일랜드 East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좌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

뉴욕 예일 장로 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예수님 제일이신 교회”



담임목사 김 중 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C) Fax (516)938-3824

www.yalechurch.org

예배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중훈목사		
신앙고백 Confession	다 같이		
찬송 Hymn	298장, 438장		
기도 Prayer	김민목사	지재홍장로	박재우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행(Acts)11:9-26		
찬양 Anthem	글로리아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Sermon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김중훈목사		
찬송 Hymn	630장		
봉헌 Offering	다 같이		
환영과 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찬송 Hymn	635장		
*합심기도 Pray Together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중훈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Please be standing)

*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셀 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1부 홍정자목사	2부 유학준장로	3부 윤희주장로
방송설교	KRB FM87.7(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Cablevision Ch.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7:00-7:30)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SN(www.csnt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금주의 기도제목

1. 담임목사와 모든 교역자들의 성령충만을 위해
2. 교회학교/목장/선교회/사역부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3. 환우, 선교사, 선교지, 방송선교를 위해
4.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속히 진압되도록
5.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와 릴레이 금식기도를 위해

지난주일 설교요약

본문: 눅(Luke)13:31-35

제목: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번 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의 모습을 동물에 비유하는 시도가 문학작품들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솝우화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종류의 동물이 나타납니다.

1. 여우

윌리엄 바클리(William Barclay)라는 성서 신학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우는 세 가지로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가장 간교한 사람으로, 둘째는 가장 파괴적인 사람으로(마 2:15), 셋째는 가장 가치 없는 사람으로 비유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의외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을 나쁘게 표현하지 않은 분이신데 헤롯 왕에 대해서는 여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헤롯은 로마 통치하에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인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과 음모를 꾸미는 파괴자입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였으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가장 쓸모없는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2. 암탉

암탉은 새끼가 위험에 처할 때 자기 날개를 펴고 병아리들을 불러들여 품습니다. 솔개도 목숨을 걸고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암탉을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삼일에는 완전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곧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갈 길을 가신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어도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을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통곡에 가까운 절규를 하십니다. 과거에도 선지자들을 돌로 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해도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23장 37-39절에 한 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과 19장 41-44절에 두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눈물이며, 하나님의 터질 듯한 심장이었습니다.

3. 병아리

병아리는 위험에 처할 때 암탉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는 암탉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그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감람산 주님의 눈물교회 강대상 정면의 모자이크가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비유는 인간이 죄로 물들면 짐승보다 못해진다는 역설적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가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변함없는 사명의 걸음으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가는 사람입니다. 여우, 암탉, 병아리 중 나는 어느 편에 해당합니까?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소원합니다.

목장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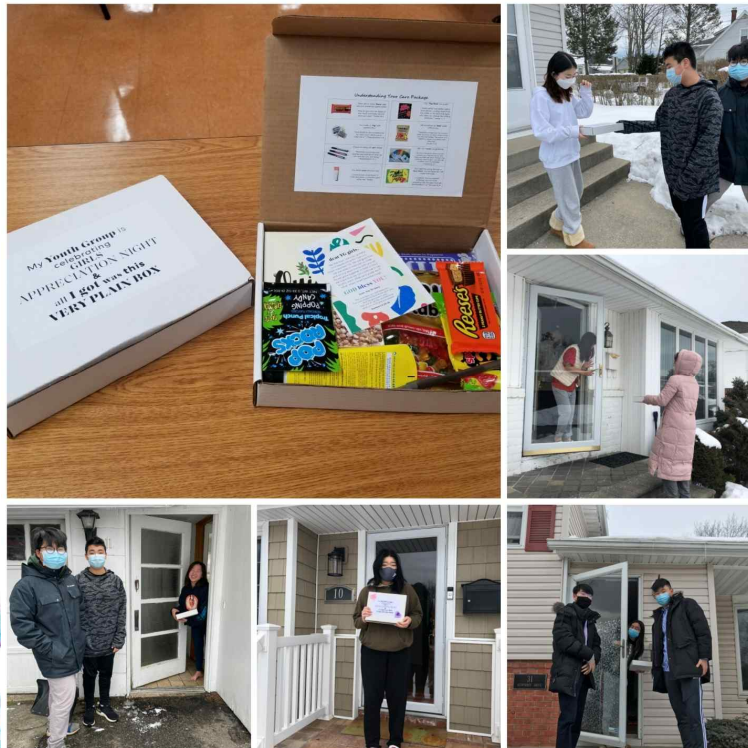
Girl's Appreciation Night (Youth Group)

유스그룹에서는 해마다 밸런타인데이를 전후해 "Girl's Appreciation Night" 이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해 동안 중고등부에서 진행하는 세 가지 감사 행사 중 하나인데요, 여학생들만 교회에서 모여 밤을 함께 보내며 기도제목과 감사를 나누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의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지만 중고등부 여학생들이 현재 코로나 전염병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고등부 남자 임원들이 준비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케어 패키지를 만들어 여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얼굴 팩과 세안제, 캔디와 팝콘, 그리고 짧은 감사의 문구를 넣어 패키지를 만들고 각자의 집으로 배달하였는데, 주는 학생들도 받는 학생들도 함께 기뻐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에게 서로를 통해 감사를 경험하며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 하며 삶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해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더욱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기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예배

온라인 예배 가이드

* 핵심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던 때처럼 동일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1.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를 한다.
2. 예배 전에 씻고 아침을 먹는다. 식사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3. 교회 갈 때처럼 예배에 적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옷을 대충 입으면 마음도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십일조 및 헌금을 준비한다.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실 분은 우편봉투에 넣어 예배시간에 드린다. Venmo를 사용하는 분들은 예배 전에 미리 다운받아서 헌금시간에 맞추어 헌금한다. 주중에 교회에 들러서 헌금하실 분들은 부목사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는다.
5. 예배시간(2부 9시 30분, 3부 11시)전에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온라인 예배를 클릭한다.
<http://www.yalechurch.org/live-stream-sermon/>
6. 다음을 숙지하여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 a. 발을 테이블에 올리지 말고, 예배당에서처럼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 b. 아이들은 부모 옆에 앉고, 예배 중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지도한다. 자녀들에게 참을성 있게 앉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
 - c. 설교 및 찬양 시간에 서로 질문하는 것이나 잡담은 피한다.
 - d.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동일하게 일어나고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 e.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예배에 참여한다.
 - f. 예배 후에 주어지는 적용질문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수요 예배

오후 8시 30분	F.M.A. 성경공부	3월 10일
기 도		인 도 자
말 씀		김 종 훈 목사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사순절특별새벽기도회(2/17-4/3)
말 씀	김 종 훈 목사

주여 새벽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봉사위원

다음 주 봉헌/안내위원 안내

예배	봉헌위원	안내위원
1부:	홍정자목사	예배부
2부:	유학준장로	예배부
3부:	윤희주장로	예배부

교회소식

예배

1.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2. 예배시간 안내: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온라인예배는 2부, 3부에만 있습니다. 온라인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요일예배: F.M.A. 성경공부 - 디도서

알림

1. 예배 및 헌금 안내: 뉴욕 주에 따르면 최대 수용인원의 50%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분, 어린아이가 있으신 가정, 몸이 불편하신 분, 아직 사람이 많은 곳이 조심스러운 분에게는 온라인 예배를 권장합니다.

- ①1부 예배는 본당(현장)예배로 드려집니다(온라인 서비스 없음).
- ②2, 3부 예배 및 CCM 예배는 본당 예배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③수요일예배와 새벽예배는 모두에게 오픈하고, 온라인예배 병행합니다.
- ④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우편주소: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2. 사순절 특별새벽기도 및 릴레이금식기도: 2월 17일(수) - 4월 3일(토)
3. 공동의회: 오늘 오후 2시 30분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4. 2월 성경통독 및 다독자 보고: 통독/7명 다독/123명
*예배 후 목자들은 통독/다독자 상품을 친교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장년교육사역부).
5. 방송 안내: 3/1일부터 온라인예배는 Youtube만 방송되고 있습니다.
6. 일광절약시간: 다음 주일(3/14) 새벽 2시를 3시로
7.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과 친교(식사)기도
 - 강 단 꽃: 배경례권사(결혼기념) 김순호권사(생일감사)
 - 사랑의식탁:
 - 떡 대 접: 라용재&유희정집사(어머니 '고 락은숙권사' 천국환송예배 감사)

교우동정

- 소천: 락은숙권사(3/2)
- 한국방문: 최영희집사

행사예고

- 3월 14일	사순절Ⅳ
- 3월 15일	뉴욕노회 정기노회 오후 7시 30분(넘치는 교회/구 한민교회)

QT본문

요일	일(7)	월(8)	화(9)	수(10)	목(11)	금(12)	토(13)
본문	시(Ps) 57:1-11	시(Ps) 58:1-11	시(Ps) 59:1-17	시(Ps) 60:1-12	시(Ps) 61:1-8	시(Ps) 62:1-12	눅(Lk) 17:20-37

목양 칼럼

2021. 10. 코로나 시대의 또 하나의 과제

코로나 시대는 지금까지 살아 왔던 일상과는 달리 비상체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흐른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왔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시대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새 건물을 인수하게 하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올 해는 직분자 선출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오늘 공동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직분자 선출이 있을 때마다 많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기대했다가 선출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낙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열리는 공동의회라 걱정의 강도는 몇 배로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직자 선출을 위해 매일 밤 온 성도들이 함께 9.11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목양칼럼을 통해 이번 공동의회에 임하는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믿음의 도움을 위해 몇 가지 내용을 실었습니다.

1. 투표용지는 사실상 교적부입니다.

후보 추천을 따로 하지 않고 오픈해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는 무기명 투표로 대상자의 이름을 씁니다. 이럴 경우에 성도들이 후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서 쓰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정확하게 쓰지 않아 무효표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생활지침서에 나오는 임직자 내규에 따라 본 교회 등록된 모든 분의 사진과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2. 이번 선거는 떨어지는 사람이 없고 뽑히는 사람만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사이에 해 왔던 방법인 당회 추천 방식과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후보 추천이 따로 없기에 뽑히는 사람만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3. 선출된 사람은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선출된 것은 명예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예일교회를 위해 자기 몸에 채우는 일입니다(골1:24).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4. 직분자 선거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뽑힌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섬길 것이고, 이번에 뽑히지 않은 사람은 겸손히 충성하며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순종의 훈련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5. 선거 후에 말조심은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내가 한 업적을 생각하면 마귀가 찾아오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보면 위로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하는 성숙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